

언어능력과 심미성

— 텍스트언어학과 문예학의 공동과제 —

박 여 성*

< 차 례 >

들어가기

1. 언어능력의 이론
2. 언어능력의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3. 판단의 조절로서의 언어능력
4. 공동연구를 위한 보기
5. 구조적 접속의 개괄 및 결론

들어가기

야콥손과 그레마스를 위시한 수많은 언어학자들의 찬란한 업적이 말해 주듯이, 언어학은 본연의 임무 이외에 문예학의 보조과학으로도 효용을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문학적 심미성(審美性)이 과연 언어(학)적 구조로 환원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논란거리이다.¹⁾

1. 언어능력의 이론

구조주의의 영향하에 구축되어 온 체계언어학은 언어 현상을 언어 체계(langue)로부터만 해명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말하기(parole)는 체계로부터의 일탈이나 변이태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시각에서 출발했던 코세리우는 1988년 『언어능력(Sprachkompetenz)』에서 초기의 출발점과는 상반되는 입장을 취한다 :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전임강사

1) 한편 문학적 수사학과 텍스트언어학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도 시도된다. 이에 대해서는 Park(1999, 2000) 참조.

“말하기(Sprechen)는 언어[체계](Sprache)로부터 해명될 수 없다. 오히려 거꾸로 언어는 오로지 말하기로부터만 해명되어야 한다. 그것은 언어가 구체적으로는 오직 말하기이며 활동이고, 말하기는 언어 그 이상에까지 미치지 때문이다. 또한 언어는 전적으로 말하기 속에 들어 있는 반면에, 말하기는 언어에서 완전히 다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의 견해로는 소쉬르의 그 유명한 요구는 이제 정반대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즉 언어를 토대로 하는 대신에, 처음부터 말하기를 토대로 문제가 제기되어야 하며, 이것이 그 밖의 모든 언어적 현상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1988: 58).

이런 급진적인 전환은 언어능력을 규명하려는 그의 학문적 구상이 정태적 구조주의로부터 말하기의 언어학(Linguistik des Sprechens), 즉 역동적 기능주의(Funktionalismus)²⁾로 진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1 언어의 삼원태

이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코세리우는 언어능력의 범위에 관한 첫 번째 문제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제시한다: 언어는 보편적인 인간의 활동이며, 말하기 능력에 대한 공동체의 전통을 대변하는 개체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행사된다. 다른 한편으로 언어는 (a) 활동(ενεργεια), (b) 활동에 기저하고 있는 지식(δυναμις) 그리고 (c) 활동의 산물(εργον)로 간주된다. 이때 언어능력을 행사하는 인간의 존재론적 지위(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와 상이한 언어적 현전태(Präsentation)의 현상학적 층위(훔볼트의 언어철학적 구상)³⁾를 교차 적용하여 1.3과 같은 관점을 얻어낸다.

1.2 언어능력 이론의 구상

이제 「말하기의 언어학」에 비추어, 언어능력의 문제에 대한 코세리우의 구상은 언어체계로부터 말하기로 시각을 180도 바꾼다(1988: 65):

2) Coseriu의 기능적 구조주의의 전반적인 개괄은 허발(1998) 참조.

3) Humboldt의 언어철학적 여정에 대해서는 Trabant(1991) 및 한국어판 안정오[1998]를 참조.

- [1] 보편적인 표현능력
- [2] 언어와 수반되는 활동에 대한 능력
- [3] 언어능력의 총체
 - [3-1] 물리적-심적인 언어능력(인지적 능력)
 - [3-2] 문화적인 능력
 - [3-21] 보편적인-언능적 지식(elokutionelles Wissen)
 - [3-22] 개별언어적-관용적 지식(idiomatisches Wissen)
 - [3-23] 텍스트/담화-표현적 지식(expressives Wissen)

1.3 말하기의 문화적 층위

말하기는 공동체의 말하기 능력의 전통을 가지는 언어공동체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화자들에 의해서, 특정한 상황 속에서, 개별적으로 실현되는 보편적인 인간의 활동이다. 이를 통하여 말하기의 세 가지 문화적 층위가 구별된다: 말하기는 일반적-보편적인 측면을 가진다. 모든 말하기는 특정한 개별언어(Einzelsprache)로 말하기이다. 우리는 늘 특정한 역사적인 전통 속에서 말하는 것이다. 끝으로 말하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늘 개인(개체)적이다: 한편으로 말하기는 늘 어떤 개인에 의해서 수행된다. 우리 모두 자발적으로 말하지만, 대화 속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역할이 교호적으로 바뀐다. 다른 한편으로 말하기는 그 때마다 특정한 일회적인 상황 속에서 실행된다는 점에서 개체적이다.

말하기를 총체로서의 언어, 개별언어로서의 언어 그리고 해당하는 개체의 말하기라는 세 층위로 구분한 것은 이미 흄볼트와 바이스게르버의 언어철학적 성찰에서 정립된 바 있다. 코세리우는 이것을 인간의 존재태와 언어의 현전태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같은 책, 72). 요컨대 말하기는: 말하기와 이해하기 활동 그 자체로서 진정한 의미의 에네르게이아(ενεργεια), 즉 기존의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조적인 활동이며, 활동에 토대가 되어 있는 지식, 즉 뒤나미스(δυναμις)인 동시에, 활동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산물, 즉 에르곤(εργον)이다. 말하자면 개별적인 말하기의 산물로서 기억 속에 보존될 수 있는 담화(텍스트)이다.

	관점(아리스토텔레스)	활동(εργεῖα)	지식(δυναμια)	산물(εργον)
층위(홀볼트)				
보편적인 층위: 말하기 일반				
역사적 층위: 개별언어				
개인적인 층위: 담화/텍스트				

화자의 활동의 세 층위는 위의 각 영역의 지식에 상응한다:

- (1) 말하기 일반, 즉 언어의 말하기 총체에 상응하는 지식은 언능적(言能的) 지식(elokutionelles Wissen)이다.
- (2) 한 특정한 개별언어로 말하기에 상응하며 그러한 역사적 전통 속에서 구축된 지식은 관용적 또는 개별언어적(idiomatisches Wissen)이다.
- (3) 개인의 말하기에 상응하고 특정한 상황에서 텍스트의 산출 방식에 관련하는 지식은 표현적 지식(expressives Wissen, Textkompetenz)⁴⁾이다.

산출물이라는 시각에서는 다시 세 층위가 구별될 수 있다. 말하기 일반의 산출물은 경험상으로 무한한 발화의 총체이다. 구체적인 개별언어의 말하기의 산출물은 추상적인 개별언어이다. 개별적인 화자의 구체적인 산출물은 텍스트이다(같은 책, 75).

	관점	관		점
층위		활동(εργεῖα)	지식(δυναμια)	산물(εργον)
보편적 층위	말하기 일반	언능적 지식	발화의 총체	
역사적 층위	구체적 개별언어	관용적 지식	추상적 개별언어 체계	
개인적 층위	담론	표현적 지식	텍스트	

4) Coseriu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개인에 의해서 발현되는 활동은 담론(Diskurs)으로 그 결과는 텍스트(Text)로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상황의 존재유무를 기준으로 discourse와 text를 구별하는 영미권의 텍스트언어학과는 다른 것이다. 이에 반해 구조주의 이래로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온 프랑스어 권에서는 discours라는 용어가 권력(Foucault), 자본(Bourdieu 1978), 신화(Lévi-Strauss/Greimas) 등의 맥락에서도 쓰이고 있다.

2. 언어능력의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언어능력의 각 층위마다 어떤 인식론적인 입장이 취해지는가? 이에 대해 코세리우는 현상학적 입장에 따라 언어내용을 삼분한다:

“말하기의 모든 활동에서 다시 언어내용의 세 층위가 구별될 수 있다: 즉 지시(Bezeichnung), 의미(Bedeutung) 그리고 의의(Sinn)이다. 지시란 보편적인 언어적 층위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언어내용의 층위로서, 언어외적 대상 또는 현실- 그것이 사태 자체이건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고내용이건-과 언어기호 사이의 관계이다. 이때 그것이 개별언어적인 층위에서 한 특정한 개별언어의 언어적으로 주어진 내용, 즉 그 지시관계를 특정한 개별언어로 포착한 것이 의미이다. 그러나 [개인의] 담화(또는 텍스트) 층위에서만 매개되는 [지시나 의미의 층위 어디에서도 포착될 수 없는], 화자가 의도한 언어내용, 즉 의의가 나타난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지시나 의미를 통해서 표현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개인의 담화 속에서 화자의 입장, 의도 및 가정에 상응하는 각별한 언어내용이다.”(같은 책, 79)

2.1 보편적 층위

여기에서는 초개별언어적인 것, 즉 어떤 개별언어로 말하건 그것을 초월하는 모든 말하기에 해당하는 속성이 문제된다. 이때 이 초개별언어적인 언어일반의 층위에는 특정한 언어내용이 할당된다. 이 층위에는 어떤 언어로 쓰여지건 동일한 진리치를 담는 명제의 층위를 할당할 수 있다. 이 층위에 대한 판단은, 그 말하기가 통상적으로 그때그때 요구되는 정상적인 기대와 조응하는가에 따라 내려진다. 따라서 이 층위에서 충족되는 말하기는 [외부세계와] 조응적(kongruent)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언어외적 세계와의 조응(일치[Kongruenz])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각수(一角獸)의 왼쪽 뿔은 검다”는 문장은 언어일반의 보편적인 층위에서 조응적이지 않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지시관계는 어떤 특정한 언어나 그 언어의 특정 표현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로마 역사의 한 순간을 “Caesar vicit pompeius”(능동문)나 “Pompeius a Caesare victus est”(수동문)으로 표현하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을 “der Sieger von Jena”(예나의 승리자)로 칭송하건 “der Besiegte von

Waterloo”(위털루의 패배자)로 비난하건, 새벽에 본 Morgenstern(새별)이나 저녁 때 본 Abendstern(금성)이나 동일한 사태를 지시하며 동일한 진리치를 가진다. 그러나 같은 의미를 (가질 수는 있지만)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2.2 개별언어적 층위

말하기는 보편적인 인간적 가능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역사적으로 구축된 특정한 언어공동체의 말하기의 역사적인 기량을 토대로 구축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텍스트가 개별언어 층위에서 특정한 공위상적(symphasisch), 공계층적(synstratisch) 그리고 공지역(syntopisch)적인 체계들 속에서 특정한 통체계로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만담(漫談: Witz)이나 동화 같은 장르나, 하인리히 뵐이나 토마스 만의 소설에서는 특정한 지역(뵐른)이나 계층(베를린 부유층) 특유의 방언이 동원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작품이 추구하는 워트나 환기(Evokation)⁵⁾는 상실된다. 이런 특정한 개별언어적인 전통에 상응하는 말하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개별언어(의 통체계)에 비추어] 정확(korrekt) 또는 부정확(inkorrekt)하다고 판단한다. 물론 이때 보편적인 층위에서 외부세계와의 조응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Ich sehe eine Baum이라는 문장은 보편적 명제의 사안과는 관계없는 독일어라는 개별언어에서 요구되는 정확성, 즉 개별언어에서 요구되는 의미 층위를 위반하는 것이다.

지시와 의미의 구별은 어휘뿐만 아니라, 문법적 층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법에는 “행위주체”, “대상”, “도구” 또는 “복수성” 같은 초개별언어적인 범주들이 할당되지만, 개별언어에서는 해당 언어에서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주격”, “목적격”, “도구격” 또는 “단수”, “복수”, “쌍수” 등의 범주가 할당된다. 한국어나 일본어는 보

5) 가장 익숙하게 알려진 보기는 뮤지컬 My fair Lady로도 유명한 G. B. Shaw의 Pygmalion을 들 수 있다. Queen's English를 가르치려는 Higgins 교수의 노력에서 바로 그런 통체계들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화해서 각색한 Pretty Woman에서는 그와 같은 Aura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Park (1994, 1996a, 1996b) 참조.

편적인 언어범주로서 복수나 대용형(Proformen)을 가지지만, 한국어나 일본어라는 개별언어 층위에서는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된다. 그렇다면 텍스트언어학의 초창기에 텍스트 결속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연구된 범주인 “문장 연결사(Satzkonnectiva)”, “재수용(Wiederaufnahme)”, “전방조용”(Anaphorik), “후방조용”(Kataphorik) 등은, 코세리우의 견해에 따르면, 개별언어의 구조원리라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개별언어[그것도 문장]의 속성에 기대어 텍스트언어학의 메커니즘을 보편화하려는 그런 텍스트언어학을 문장(의 속성을 텍스트에 연장하려는) 초월적(transphrastisch) 텍스트언어학⁶⁾으로 규정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의의 언어학(Linguistik des Sinns)으로서의 기능적 텍스트언어학과 대립시키고 있다.

2.3 개인적 층위

끝으로 말하기라는 구체적인 활동은 개별 상황에 있는 개별 화자에 의해서 실행된다. 이때 발화행위는 해당하는 상황에 적절한 지[angemessen]에 따라 판단한다. 예를 들어 독일어권의 아침 인사는 Guten Tag이나 Guten Morgen이다. 즉 의의(Sinn)는 “인사하기”이다. 한편 언어 문화적으로 근접한 프랑스나 이탈리아 또는 스페인어에서는 *Boun matin (Bon jour), Buenna mañana, Boun Mattino, Bon jour, Buenos dias, Bon giorno 등의 보기에서처럼, 해당하는 언어체계들이 텍스트 층위에서 의의를 충족하기 위하여 일관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층위에서는 텍스트가 상용하는 상황에서 그때그때의 산출자나 상황에 적절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런 상황을 언어학이나 문예학에서는 발화상황(Situation), 장르(Gattung/Genre) 또는 텍스트종류(Textsorte)라고 한다. 어떤 것이 적절하면 그것이 외부세계와 조응하는 또는 특정한 개별언어에서 정확한 것인지는 부차적이다. 텍스트 내지는 담화 층위는 화자의 태도나 의도 가정 등에 상용하는 의의(Sinn)라는 언어내용이 창발한다. 이를 통해 생겨나는 (문학적) 효과를 엘름슬레우(1974: 112-120 참조)는 환

6) 이를테면 Harweg(1969/1978)이나 이른바 명제적인 입장의 텍스트언어학을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Rolf(1993) 참조.

기(Evokation)라고 한다. 예를 들어 카프카의 변신(Die Verwandlung)에 나오는 갑충(甲蟲: Ungeziefer)은 언어외적 지시대상으로서는 특정한 종류의 곤충이겠으나, 독일어의 어휘소 체계의 의미만으로는 환원될 수 없음이 드러난다. 그것은 복잡다단한 해석학적 상황 속에서 배태된 카프카의 작품이라는 텍스트에서 작가가 의도한 환기[의 결과 생겨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이제 필자는 이 각 층위들과 판단 및 언어내용과 그에 상응하는 지식의 유형들이 서로 구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고 본다.⁷⁾ 이것은 슈미트가 구성주의 언어이론에서 제기한 코뮤니카트의 요구조건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인지과정의 코뮤니카트는 언어능력의 층위를 충족해야 한다: 보편적 층위에서는 지시관계의 진리치(Wahrheitswert)를, 개별언어적 층위에서는 공동체(개별언어의 체계)에서 구축된 의미론(Soziale Semantik)을, 개체의 담화 차원에서는 화용론적 특성과 정서(Affekt, passion)의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 아래의 도표는 이것을 간략히 보여주고 있다:

층 위	판 단	언어내용	지 식
말하기 일반	조용(일치)	지시(명제)	언능적 지식
개별언어	정합성	의미(언어체계)	관용적 지식
담화(텍스트)	적절성	의의(화행/환기)	표현적 지식

3. 판단의 조절로서의 언어능력

이제 언어능력의 구체적인 판단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3.1 보편적 언어능력

3.11 인간의 사유능력의 원리들

여기에서는 개별언어나 개인의 텍스트를 넘어서는 인간 사유의 일

7) 구조적 접속(strukturelle Kopplung)에 대해서는 Schmidt(1987, 1994) 참조.

반적인 원리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구의 대륙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네 개다”라는 부조리 문장이나 “예수의 사도는 모두 열 둘이었다. 베드로는 사도였다. 고로 베드로는 열 둘이다”라는 엉터리 삼단논법을 들어보자(Coseriu 1988: 90-96). 이 문장들에서 나타나는 비조용 [Inkongruenz]은 독일어나 한국어 문장과는 무관하며, 인간의 정상적인 논리로 기대할 수 있는 지식과 상충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문장들을 판단하는 지식은 외부세계의 사태가 세상의 원리와 조용하는가에 관심을 두는 (특히 자연과학에서 요구되는) 보편적인 원리이다.⁸⁾

3.1.2 사물·일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어떤 언어로 말하건 사물(또는 세상)에 대한 지식이나 백과사전적 지식에 해당하는 제한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나는 나의 낡은 피아노를 삶아 버렸다” 같은 문장은 독일어나 한국어의 비정확성 때문이라기 보다는, 그런 사태가 우리가 일상세계에서 경험하는 것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비조용으로 판단된다. 역으로 이와 같은 비조용이 (문학)작품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순간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거나 새로운 비질서를 가정하려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 순간 문학 텍스트에서는 이율배반을 통한 환기가 일어난다. 이러한 기법의 명수인 카프카는 물리적인 세계의 보편타당한 질서(지시관계)를 의문시하면서 온 세상을 예기치 못한 환기로 가득한 불확실한 것으로 만든다. 그래서 “수염 없는 여자”나 “눈이 둘 달린”, “창문이 있는 집”, “물이 흐르는 강” 등의 보기는 정상적인 세계에서는 정보가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장을 말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라이스(Grice)가 말하는 일종의 화용론적 함축(Implikatur)⁹⁾이 일어난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다른 전제조건을 지향하며 눈앞의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상상한다. 걸리버 여행기나 사이언스 픽션에서는, 정상적인 세계에서와는 달리, 전적으로 일상적인 그래서 정보가치가 전혀 없는 것도 비상한 환기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그 괴물은 코가 하

8) 이에 대해서 신실용주의 철학의 기수인 로티는, 어떤 과학적 진술이라도 결국 자문화/자인종 중심주의를 벗어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서는 박여성(2000)을 참조할 것.

9) Grice(1965/1970), Levinson(1983/1990)를 참조.

나 밖에 없었고 눈은 두 개나 있었다.” 그런 세계에서는 이 무정보가 새로운 정보가치를 통하여 환기작용을 상승시킨다.

3.1.3 특정한 해석을 선호하는 능력

개별언어적인 기능을 해석할 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특정한 해석을 선호하는가? 조어론에서는 “판에 박힌 해석”에 대한 근거를 언어체계만으로는 해명하지 못하고, 상투형(Stereotypen)이라고 얼버무린다. 예를 들어 Ich brauche einen Wecker. Mein Wecker ist meine Frau. 에서 개별언어[독일어] 자체는 접미사 -er이 사람(동작주)인지 도구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줄 수 없다. 다양한 가능성으로부터 특정한 선택을 하는 지식은 순수한 언어적 지식이 아닌 일상적인 세상지식(Weltwissen)에 기대고 있다. 그러한 해석은 특정한 맥락에서 일정한 선택이 다른 것에 우선권을 가진다는 경험적인 세상지식을 통해서 주어진다. 다음의 보기들을 보자: frz. cusinière blonde(금발의 여주방장)-cusinière électronique(전기 화덕)/dt. Kaffemühle(커피 가는 기계)-Windmühle(풍차)/Straßenhändler(노점상)-Buchhändler(서적상)/Schlüsselkind(맞벌이 부부의 아이)-Sorgenkind(말썽쟁이)/Spaßvogel(다른 사람에게 늘 기쁨을 주는 사람)-Pechvogel(늘 재수없는 일을 당하는 사람) 등. 붕이 김선달처럼 길을 사고 파는 부동산 시대에는 길이나 강을 매매한다는 의미 창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Flußhändler).

3.1.4 전문용어와 일상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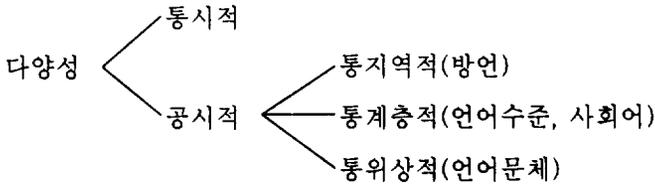
자연과학이나 공학 텍스트의 전문용어들은 대부분 개별언어의 질서보다는 이 세상을 분류한 객체적 질서를 따른다. 이런 점에서 전문언어의 어휘소들은 외부대상 세계의 분류결과이며, 분류된 전문언어 어휘소들의 경계구획은 철저하게 배타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각종 학문의 체계는 중의성에 시달릴 것이다. 그 차이는 전문언어와 일상언어의 어휘들의 대립구조를 보면 뚜렷이 드러난다. 미국의 논리철학자 크립키(S. Kripke)에 기대어 스웨덴의 언어학자 룬트크비스트(Lundquist 1989: 128-130 참조)는 다음과 같이 조명하고 있다: 일상언어는 우발적 속성(contingent properties)에 대한 선험적 규정(a priori knowledge of a

natural kind term)으로서 원초적 명명의식(original naming ceremony)인 반면, 전문용어들은 본질적 속성에 대한 후험적 지식(a posteriori knowledge of essential properties)에 근거하는 새로운 명명의식(new naming ceremony)이다. 이와 일치하는 코세리우의 견해에 비추어 보자면, 전문용어에서의 대립은 '산'과 '염기'의 대립처럼 철저하게 배타적인 반면에, 일상언어의 대립은 종종 내포적이어서, Tag=Tag+Nacht 나 uomo=donna+uomo 처럼 무표항이 유표항을 내포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전문언어로 된 텍스트가 개별언어적 속성이나 개인층위의 환기를 가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런 요인들이 보편적인 지시관계에 비해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연과학의 언어가 보편적이지 않고 내포적이라면, 해당 과학의 정합성은 위협받으며 그 과학 자체가 붕괴한다. 피, 물, 우박, 얼음, 등온선, 연평균 기온선 등은 그 표현이 속하는 개별언어의 낱말밭 속에서 해당하는 위치가치(valeur)를 가진다. 그러나 그 낱말이 귀속하는 과학의 영역에서는 '물'은 H₂O라는 분자식을 가진 화합물의 구조이며, '열'은 활성분자의 열역학적인 운동상태로 기술된다. 말하자면 과학적인 기준에 따른 현실의 분할과 개별언어적인 위치가치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자연과학이나 공학뿐만 아니라, 개별언어적인 속성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려는 법률이나 정치적인 사안이 문제가 되는 인문사회과학 텍스트에서도 볼 수 있다.

3.2 개별언어적 능력

3.2.1 통체계

개별언어적인 언어능력은 통상 랑그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때 랑그의 범위는 두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역사언어의 통지역적, 통계층적 그리고 통위상적 차이로 확장된다. 이 세 유형은 서로 평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중첩된다. 이를 통해 크레올(Creol)이나 피진(Pidgin) 같은 간섭현상이나 인접 언어권 사이의 언어접촉이 생긴다. 다른 한편으로 동일한 화자의 통시적인 언어능력에도 (부분적으로) 여러 상이한 언어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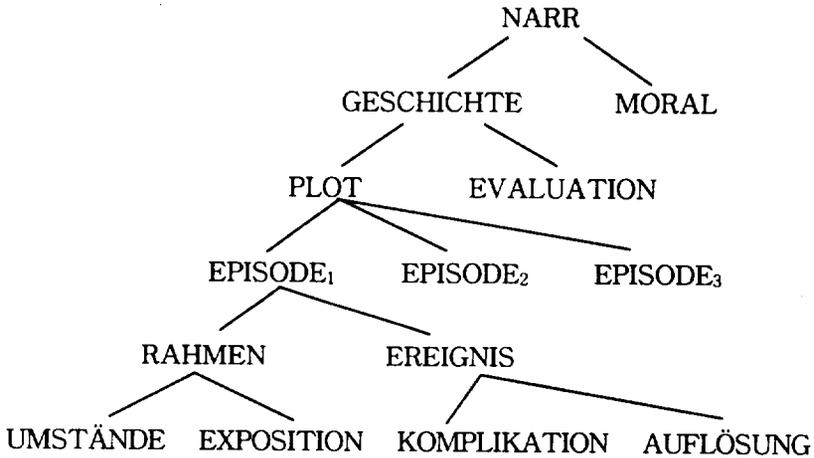
이때 언어를 시간적 차원을 가지는 전통으로 이해하는 화자는 이러한 통시적인 의식을 통하여 그들이 쓰는 언어의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장과 언어적 지식의 운용을 규정한다. 그래서 화자들은 통시태에 민감하며, 특히 문학적 전통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거의 대부분의 언어 공동체에는 화자의 생생한 언어능력의 발현을 위해서 통시적 차원을 동원해야 하는 [구두적인] 문학 전통이 존재한다. 통시적 사실은 언어 문체상의 기능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환기기능도 가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음유가수 라인하르트 마이의 상송 “백정 프레드 카슬리케의 출세에 관한 발라드”나 채플린의 유성영화 “위대한 독재자”의 구절은 입말의 전통을 모방하는 언어혼합을 보여준다: *Wchnz suschna, nix ersatzki? Fred Kasulyke protestazki?* 이와 같은 통시적 다양성은 글로 쓰인 문학언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그리스에서는 호머의 방언이 쓰였고, 특정한 연극장르(가죽바지 익살극[Lederhosen-Witz])는 바이에른 방언으로, 판소리나 창은 각 지방의 토박이말로 해야 제 격이다. 서울 표준어로 부르는 빠지르르한 수궁가를 상상할 수 있는가? 전라도 말로 서도(西道) 창을 부를 수 없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와 같은 통지역적인 다양성은 목표언어의 등가 층위가 출발언어와 기능적으로 상응하는지에 따라서 기껏해야 간접적으로 대체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은 로티가 말하는 자문화중심주의(Ethnozentrismus)와도 상통한다.

3.3 텍스트 언어능력

표현적 언어능력은 화자, 수신자, 대상 및 상황을 지향하는 화용론적 조건 속에서 배태된다. 따라서 그것을 규정하는 규범들 또한 이질적이며 구속력도 천차만별이다. 이를테면 말하기의 다양한 양식에 대

해서는, 아주 보편적인 규범에서부터 텍스트종류나 장르에 대한 자세한 규범을 거쳐 급기야 전통적으로 엄격하게 고착된 텍스트공식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텍스트 공식에서는 매우 강하게 고정된 특수한(대부분 간결한) 형식과 의미론적/통사론적 규범을 가지며, 텍스트종류에서는 비교적 규칙적인 화행론적 규범이, 소설과 같은 장르에서는 텍스트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일반적인 규범(예를 들면 상부구조나 초시구조[Superstruktur])만이 존재한다.

- 서사적 상부구조(초시구조, Van Dijk 1980; 142)



- 영수증(Quittung)

<p>Hiermit wird bestätigt, von Herrn/Frau DM_, in Worten_ Deutsche Mark erhalten zu haben. Datum_, Unterschrift</p>
--

4. 공동연구를 위한 보기

4.1 음운론적 유희

“언어예술은 프로그램이다. 로만 야콥손은 작가의 언어를 중시한다. 그는 작가를 정말로 중시한다. 문학을 위한 작가들의 접근은 언어학자의 작업과 동일하다.”(Jakobson, 1976: 9)는 홀렌슈타인의 지적대로 우리는 문학 텍스트에서 상당수의 언어적 조작을 발견한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리듬, 두운 또는 각운 등의 음성학적 평행구조이다. 예를 들어 뢰달린의 말기¹⁰⁾에 지어진 작품인 『Aussicht』에 나오는 운을 만드는 낱말을 분석해 보면 쌍을 이루는 운, 억양 및 모음의 길이 사이의 대립구조가 드러난다. 특히 뢰달린은 시의 내적인 구조와 이런 특징들을 정교하게 조작하고 있다. 야콥손은 심지어 뢰달린이 완벽한 조화를 나타내는 황금분할의 비율 1: 1.618을 자음과 모음의 비율로 재현하고 있음을 밝혀 내었다. 물론 그와 같은 작위적 연산비율이 곧장 심미성 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뢰달린이 즐겨 썼던 또다른 수법은 음운을 이용한 감추어진 이름 만들기(Anagramm)¹¹⁾였다. 그래서 1837년에서 1838년 사이에 지어진 시에 자기 이름 Hölderlin의 순서를 헝클어서 만든 Scardanelli라는 암호로 서명한다:

1	2	3	4	5	6	7		4	2	-	7	3	1	5	6
l	d	e	r	l	i	n		r	d	a	n	e	l	l	i

익명의 또다른 준거는 몰리에르의 이름을 딴 Sganarelle.이다:

10) 뢰달린의 조카인 프리츠 브로인린에 따르면, 이 시는 대략 1843년 5-6월경에 쓰여 졌다고 한다. 뢰달린은 인생의 말기에 정신병으로 인하여 뉘른베르크에 사는 친구인 목수인 김 다락방에 은거하며 고통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뢰달린의 후기 작품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문학적 평가를 받기에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야콥손은 그의 말기 작품들이야말로 그의 고도의 계산된 치밀한 천재성을 담은 작품임을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11) 뷔플랑 성에 칩거하며 만년을 보낸 de Saussure의 관심 또한 수수께끼 이름(Anagramm)에 대한 연구였다. 이에 대해서는 김성도(1999)를 참조.

1 2 3 4 5 6 7 8 9	1 2 3 6 - 5 4 7 8 9
s g a n a r e l l	s c a r d a n e l l i

감추어진 이름의 교묘한 흔적은 대작 휘페리온에서도 볼 수 있다: Hyperion(H..er.n), Hölderlin(H..er.n), holder Stern (holder...n), herrliche(herli...), Heldenlauf(Hölde..l), Himmels Höhe glänzet/Höhe glänzet den(Hö-l-de-n). 이런 아나그램의 번역은 목표언어의 등가적인 시니피앙의 층위에서 출발언어의 시니피에에 상응하는 시니피앙을 할당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행복한 번역은 불가능하다.

4.2 어휘 및 통사차원의 유희

그의 시는 음운의 속성뿐만 아니라, 운들끼리 가지는 문법적 구조, 격(주격/여격), 수(단수와 복수), 성(중성/여성) 사이의 대립구조를 통하여 행마다 결합되어 있다. 그와 같은 변형은 유의어와 반의어로 이루어진 평행구조 외에도 “언어의 파라디그마 축에 두드러진 유사성 원리가 연속성의 원리가 두드러진 통상적인 말하기의 신타그마 층위에” 투영된다. 이것은 파라디그마 축의 유사성(무리)을 신타그마 층위에 투영하는 구조주의의 전형적인 작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¹²⁾

Wer ist weise **genug**, dies zu **fassen**?
 Verständig **genug**, dies **einzusehen**?(Hosea, 14: 10)
 (aus, Holenstein 1976: 11)

평행적인 낱말범주들은 의미상으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아나가 상반되거나 모순을 이루는 경우에 통사적인 평행구조는 더욱 두드러진 효과를 가진다.

Licht wird **alles**, was ich **fasse**,
 Kohle **alles**, was ich **lasse**.(Nietsche, Ecco homo) (ebd.).

12) 이것이 바로 구조주의적 신화 읽기의 기본원리와 동일하다.

당시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전해지는 윌덜린의 작품의 이분법적 언어구조의 특성과 창조력은, 정상적인 교류에 참여하는 능력을 상실한 대가로 얻은 능력인 동시에, 개별언어적 구조가 개인적인 언어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보기이다.

4.3 텍스트 차원의 시제

이야기하기(Erzählen)가 바인리히(1993)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서사적 과거(Episches Präteritum)에 의해서 표시된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두 무리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무리로는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나 카프카의 『성(Das Schloss)』 또는 카네티의 『현혹(Die Verblendung)』을 들 수 있다. 이 작품들은 처음부터 이야기하기의 전형적인 보기를 제시하는 특이한 구조, 즉 전형적인 서사적 과거들이다. 다른 한편 토마스 만의 『마의 산(Der Zauberberg)』이나 고트프리트 켈러의 『푸른 옷의 하인리히(Der grüne Heinrich)』 같은 작품들은, 예를 들면 아래에 인용한 로베르트 무질의 『특성 없는 인간(Der Mann ohne Eigenschaften)』의 앞부분처럼 비허구성의 섬(Inseln der Nichtfiktionalität)과 같은 일종의 서문(들어가기[EINLEITEN]: 주장[BEHAUPTEN]이나 확인[ASSERTION]으로 평가되는)에 해당하는 구절을 가진다(Rolf 1996: 314 이하 참조):

(1) Über dem Atlantik befand sich ein barometrisches Minimum; (1.1) es wanderte ostwärts, (1.1.1) einem über Rußland lagernden Maximum zu, (1.1) und verriet noch nicht die Neigung, diesem nördlich auszuweichen. (2) Die Isothermen und Isotheren taten ihre Schuldigkeit. (3) Die Lufttemperatur stand in einem ordnungsgemäßen Verhältnis zur mittleren Jahrestemperatur, (3.1) zur Temperatur des kältesten wie des wärmsten Monats und zur aperiodischen monatlichen Temperaturschwankung. (4) Der Auf- und Untergang der Sonne, des Mondes, der Lichtwechsel des Mondes, der Venus, des Saturnringes und viele andere bedeütsame Erscheinungen

entsprachen ihrer Voraussage in den astronomischen Jahrbüchern. (5) Der Wasserdampf in der Luft hatte seine höchste Spannkraft, (6) und die Feuchtigkeit der Luft war gering. (7) Mit einem Wort, (7.1) das das Tatsächliche recht gut bezeichnet, (7.1.1) wenn es auch etwas altmodisch ist: (7) Es war ein schöner Augusttag des Jahres 1913.

5. 구조적 접속의 개괄 및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도표로 요약해 보도록 하자:

Ebene	Inhalt	Urteil	Kommunikat	ling. Kategorien	Autoren		
					R. Cook, I. Ashimov	H. Böll	R. Musil
universell	Bezeichnung (Welt)	Kongruenz	propositional	Proposition	medizinische u. astronomisches Wissen	2. Weltkrieg	meteorologisches Wissen
einzelsprachlich (kollektiv)	Bedeutung (langue)	Korrektheit	soziale Semantik	Lexikalische u. grammatische Kategorien (System)	absichtliche Vermeidung der Substitutionen	Kölner Dialekt, Episches Präteritum	Einleitungspräteritum
individuell	Sinn (Text, Diskurs)	Angemessenheit Felicity	Emotion, Illokution, Evokation		Sprechakte usw.		

일상적인 담론(텍스트)의 목적이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면 심미성을 추구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 구조의 규칙성과 유추성, 구조성과 위계성 그리고 기능성과 재귀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그 구조를 단절하려는 특성을 띠고 있다. 이른바 자기파괴의 방식이다. 이를 통하여 일상적인 소통의 단절은 심미성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본고에서는 그와 같은 유추와 비동일성의 방식 및 효과가 언어학과 문예학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입장들을 검토하여 보았다. 언어학자와 문예학자의 공동작업은 보다 실증적이고

학제적인 연구과제를 제공할 것이며, 인위적으로 갈라진 이 분야의 담론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향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¹³⁾

참고문헌

- 고영근(1999) 텍스트이론: 언어문학 통합론의 이론과 실제, 아르케.
김성도(1998 번역) 의미에 관하여, 인간사랑.
_____(1999) 로고스에서 뫼토스까지, 한길사.
박여성(1995 번역) 구성주의. 까치글방.
_____(1996 번역) 미디어 인식론: 인지-텍스트-커뮤니케이션, 까치글방.
_____(2000 번역) 리처드 로티. 인물이해 시리즈. 인간사랑.(근간)
안정오(1998 번역) 홉볼트의 상상력과 언어. 기호학 총서. 인간사랑.
허 발(1998 번역) 현대 의미론의 이해(E. Coseriu 논문집). 국학자료원.
de BEAUGRANDE, R.A.(1997) Foundations for a Science of Text and Discourse. Ablex.
BOURDIEU, P.(1978) Die feinen Unterschiede. Suhrkamp. F.a.M.(La distinction. Critique sociales du jugement의 독일어판>. 한국어판(최종철, 1996, 새물결)도 참조
COSERIU, E.(1988) Sprachkompetenz. Francke. Tübingen.
GRICE, H. P.(1968/dt. 1980) "Logik und Gesprächsanalyse." In: Sprechakttheorie, Ein Reader(hg. v. P. Kußmaul), Athenaiion
HARWEG, R.(1968/79) Pronomina und Textkonstitution. Fink. München.
HJELMSLEV, L.(1974) Prolegomena zur einer Sprachtheorie. München.
JAKOBSON, R.(1976) Hölderlin, Klee, Brecht. Zur Wortkunst dreier Gedichte. Eingeleitet und herausgegeben von Elmar Holenstein. stw 162. Suhrkamp. F.a.M.
LEVINSON, S. C.(1983, dt. 1990) Pragmatik. Tübingen. Niemeyer.
LUNDQUIST, L.(1989) "Coherence in Scientific Texts." In: W. Heydrich (hg.) Connexity and Coherence. 122-149, Walter de Gruyter. Berlin/New York.
PARK, Yo-song(1994) Übersetzung als interlinguale und interkulturelle Neukonstruktion. Eine textlinguistische Analyse der assertiven Textsorten im Deutschen und im Koreanischen. LIT. Münster/Hamburg.
_____(1996a) "Probleme der Natur und Kultur in einer konstruktivistischen Übersetzungstheorie. Ein Gesprächsangebot für Sprach-

13) 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은 고영근(1999) 참조.

- und Literaturwissenschaftler." Das 4. Sôrak Symposium. Gesellschaft für Koreanische Germanistik.
- _____(1996b) "Für eine konstruktivistische Übersetzungstheorie", in: P. Kunsmann(hg.) Linguistische Akzente 93, 30-61. Dr. Kovac. Hamburg.
- _____(1999) "Zur Vorgeschichte der Textlinguistik: Chinesische Rhetorik als texttypologische Fundgrube", (Vortragsmanuskript für die 3. Asiatische Germanistentagung in Fukuoka).
- _____(2000) "Brennpunkte der vergleichenden Sprachtheorie. 'Chinesische bzw. koreanische Rhetorik als textlinguistische Fundgrube", (Das 3. Ost-West Kolloquium für Sprachwissenschaft der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Gunter Narr Verlag(in Vorbereitung).
- ROLF, E.(1993) Die Funktionen der Gebrauchstextsorten. W. de Gruyter.
- _____(1996) "Inseln der Nichtfiktionalität. Ein Beitrag zur Poetik des Romans aus sprachwissenschaftlicher Sicht" In: W. Motsch (1996 hg.), 302-324.
- SCHMIDT, S. J.(1987, hg.) Der Diskurs des Radikalen Konstruktivismus. F.a.M.
- _____(1994) Kognitive Autonomie und soziale Orientierung. Suhrkamp. F.a.M.
- TRABANT, J.(1991) Traditionen Humboldts. Suhrkamp.F.a.M.
- WEINRICH, H.(1993) Textgrammatik der deutschen Sprache. DUDEN.

Keyword: Textlinguistik, Sprachkompetenz & Poetik